

『金匱要略』에서의 黃疸에 관한 研究

彭鐘基·尹暢烈*

對『金匱要略』之黃疸的研究

彭鐘基·尹暢烈

大田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金匱要略·黃疸病脈證并治』篇所論黃疸病包括濕熱發黃，寒濕發黃，火劫發黃，燥結發黃，女勞發黃以及虛黃等，其範疇覆蓋較廣。本篇主要論述了濕熱發黃的病因，病機，治療原則及其辨證論治。黃疸的病機主要在於脾色必黃，瘀熱以行，腎虛等方面，致病原因則主要在於外感，飲食不節，虛損以及誤治等方面。仲景大體上將黃疸分類為谷疸，酒疸，女勞疸。谷疸以身黃，目黃，洩黃，寒熱不食，食即頭眩，心胸不安等為主症，是因飲食不節及濕熱內蘊而發病，治宜清利濕熱，方用茵陳蒿湯。酒疸以身黃，目黃，洩黃，心中懊惱或熱痛為主症，是因飲酒過度及濕熱薰蒸而發病，治宜清熱除煩，方用梔子大黃湯。女勞疸以額上黑，足下熱，日晡所發熱，而反惡寒，膀胱急，小便自利，大便必黑時溇等為主症，是因腎虛夾瘀而發病，治宜益腎祛瘀，方用金匱腎氣丸，或用六味地黃丸伍入硝石礬石散。黃疸治法有汗·吐·下·和·溫·清·補·消等八法，當隨證選用。無論谷疸還是酒疸，應辨其濕熱併重，還是熱重於濕，或濕重於熱，若屬濕熱併當用茵陳蒿湯，若屬濕重於熱，當用茵陳五苓散，若屬熱重於濕，重者用大黃硝石湯，輕者用梔子大黃湯。濕熱黃疸(酒疸和谷疸)，久不愈可轉變為黑疸。若黃疸誤治，出現胃氣上逆而噦者應和胃降逆，方選小半夏湯。諸黃表虛者，當益氣固表，調和營衛，方選桂枝加黃芪湯。邪在少陽者，應和解少陽，方選小柴胡湯；若邪在少陽與陽明者，應和解少陽，去陽明里實，方選大柴胡湯。萎黃屬胃腸燥結者，應潤腸通便，方選豬膏發煎；屬脾胃寒濕者，應溫補脾陽，方選小建中湯。黃疸的治療，臨證還當參考『河間六書·論證』之說，其臨床參考價值很大。其具體內容為：“結胸而發黃者，茵陳同陷胸湯各半服之，或誤服巴豆熱毒丸藥下之，反損陰氣，遂協熱利不止而發黃者，同大承氣各半服之。亦有協熱利不止，更或結胸而發黃者，用茵陳五分，同陷胸湯三分，大承氣湯二分以下之。或兩感發黃者，木方加黃連解毒湯一服急下之，或頭微汗，小便利而微黃者，濕熱微也，宜梔子柏皮湯，發黃甚者，茵陳合三一承氣湯。陽明病表熱極甚，煩渴熱郁，留飲不散，以致濕熱相搏，而身體發黃，其候但頭汗出，身無汗，齊頸而還，小便不利，渴欲水漿者，身體發黃，宜茵陳湯調下五苓散。”

I. 緒論

黃疸은 目黃, 身黃, 小便黃赤 등을 主症으로 하는 疾患으로서¹⁾ 現代醫學의 많은 疾病에서 나타난

수 있다. 예를 들면 바이러스성 肝炎, 肝硬化, 肝癌, 閉塞性黃疸, 溶血性黃疸, 膽石症, 膽囊炎, 膽管炎, 膽囊癌 등에서 모두 黃疸의 病症이 出現하곤 한다²⁾³⁾.

黃疸에 대해서 『內經』에 이미 言及한 바가 있었는데, 『素問·平人氣象論』에서는 “溺黃赤安臥者, 黃

*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 교신저자 : 윤창열 · E-mail : yooney@dju.ac.kr

· 채택일 : 2004년 7월 22일.

1) 上海中醫學院 編, 中醫內科學, 香港, 商務印書館香港分館, 1977, p83.

2) 揚力, 中醫疾病豫測學,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4, p264.

3) 大韓병리학회, 병리학(II), 서울, 고문사, 1995, p744.

疸. 目黃者, 曰黃疸”⁴⁾이라고 하였고, 『靈樞·論疾診尺篇』에서는 “身痛而色微黃, 齒垢黃, 爪甲上黃, 黃疸也”⁵⁾라고 하였으며, 『素問·六元政紀大論』에서는 “凡此厥陰司天之政 …… 民病黃疸而跗腫⁶⁾”한다고 하여 全身黃, 目黃, 溲黃 등이 黃疸의 特徵인 臨床表現임을 明確히 밝혀주었고, 또 黃疸의 病因病機에 대해서도 多少 說明을 해 주었다.

이후로 黃疸病에 대하여 漢代의 張仲景이 『金匱要略』에서 穀疸, 酒疸, 女勞疸, 黑疸 등으로 分類하면서 具體的인 治療方法을 提示한 바가 있었고, 隋代 巢元方은 『諸病源候論』에서 黃疸의 病機에 대하여 여러 가지 發病狀況과 症狀에 따라 28候로 分類한 바가 있었다. 또 宋代 『聖濟總錄』에서는 黃疸를 九疸, 三十六黃으로 分類한 바가 있었고, 元代 羅天益은 黃疸의 性質에 따라 黃疸를 陽黃과 陰黃으로 크게 分類하기도 하였다. 明代 『證因脈治』에서는 또 黃疸를 外感黃疸과 內傷黃疸로 分類한 바가 있었다⁷⁾.

그리고 黃疸病의 病位에 대하여 『靈樞·經脈』에서는 “脾所生病者 …… 黃疸⁸⁾” 및 “腎所生病者 …… 黃疸⁹⁾”이라고 하였고, 『素問·玉機真臟論』에서는 “肝傳之脾, 病機曰脾風, 發瘧¹⁰⁾”이라고 하였다. 以上の 理論을 根據로 張仲景은 또 “脾色必黃”, “尺脈浮爲傷腎” 등의 說을 提起하였고, 張介賓은 『景岳全書·貫集·卷之三十一·雜證謨·黃疸·論證論證』에서 “疸傷則膽氣敗, 而膽液泄, 故爲此證”¹¹⁾이라고 하였는데, 이들을 綜合하면 黃疸病의 病位가 主로 脾·腎·肝에 있으면서 膽과도 關聯이 있음

을 알 수가 있다.

이상과 같이 歷代의 醫家들은 黃疸에 대하여 많은 認識을 갖고 있었는데, 그 分類가 지나치게 繁雜하고 臨床에서 古醫書를 活用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著者는 張仲景의 『金匱要略·黃疸病脈證并治』에 나타난 黃疸의 症狀·病因·分類·病機·治法·方藥·豫後 등에 대하여 각 醫家의 註釋을 參照하여 함께 考察함으로써 黃疸病에 대한 基礎資料로 삼고자 研究하여 若干의 知見을 얻었기에 이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研究方法

본 論文은 『金匱要略』의 原文 順序에 따라 篇을 나누었으며, 校勘·字句解·考察의 順으로 研究하였다.

가. 原文은 大星文化社에서 1984年度에 影印出版한 『仲景全書』를 底本으로 하였다.

나. 校勘과 字句解는 郭靄春과 王玉興이 編著한 『金匱要略校註語譯』(中國中醫藥出版社 1999)을 主로 參考로 하였다.

다. 字句解는 本文을 理解하는데 꼭 必要한 경우에 限하여 簡略하게 說明하였다.

라. 考察은 陳紀藩이 主編한 『金匱要略』(人民衛生出版社, 2002.)을 主로 參考로 하였다.

마. 本文에 記載된 原文은 條文이라고 名稱하였다.

바. 本 論文에 使用한 符號는 引用文獻에는 ‘[]’로, 脚注에는 1), 2), 3)으로, 校勘에는 ①, ②, ③으로, 字句解에는 ‘[]’ 등의 一連番號로 標示하였다.

III. 研究內容

黃疸病脈證并治第十五

【原文 1】

寸口脈浮而緩하니 浮則爲風이오 緩則爲痺니 痺非中風이라 四肢苦煩⁽¹⁾하고 脾色^①必黃하니 瘀熱以行일새라

- 4) 郭靄春 主編, 黃帝內經素問語譯,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114.
- 5) 南京中醫學院中醫係 編著, 黃帝內經靈樞經譯,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p450.
- 6) 郭靄春 主編, 黃帝內經素問語譯,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483.
- 7) 上海中醫學院 編, 中醫內科學, 香港, 商務印書館香港分館, 1977, p83.
- 8) 南京中醫學院中醫係 編著, 黃帝內經靈樞經譯,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p102.
- 9) 南京中醫學院中醫係 編著, 黃帝內經靈樞經譯,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pp.107~108.
- 10) 郭靄春 主編, 黃帝內經素問語譯,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125.
- 11) 明·張介賓, 景岳全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693.

【校勘】

① 脾色: 脾는 皮의 誤字로 이는 發音이 같아서 생긴 잘못이다. 또 黃疸은 皮膚色이 必히 黃色을 띄고 있기 때문에 脾가 皮의 誤字임을 알 수 있다.

【字句解】

(1) 四肢苦煩: 煩은 심히 지친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廣韻·二十元』에 “煩, 勞也”라 하였고, 『六豪』에 “煩, 倦也”라 하였다.

【考察】

본 條文은 黃疸病의 病機에 대하여 論하고 있다. 그 중 “寸口脈浮而緩, 浮則爲風, 緩則爲痺”를 보면 이는 脈象을 通하여 黃疸의 致病素因이 곧 外邪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寸口脈浮關寸 三部脈이 浮함을 말하는 것이고, 이 “浮”는 風을 주하며, 風은 陽邪이고 熱로부터 化하기 쉬운 것이다. 또 “緩”은 濕을 주하고, 濕은 陰邪로서 脾를 傷하기 쉬운데, 脾가 喜燥惡濕하기 때문에 風邪化熱한 것이 濕과 서로 엉켜 脾를 鬱閉함으로써 黃疸이 形成되는 것이다. 黃疸이 外感으로부터 起因한다는 主張의 淵源은 『內經』에 있으니 즉 『素問·玉機眞臟論』에 “今風寒客於外 …… 髮痺”이라 하였고, 『素問·六元政紀大論』에 “溽暑至, 大雨時行, 寒熱互至. 民病寒熱, 喑乾, 黃瘧”이라고 한 것 등이다. 그리고 “痺非中風”은 본 條文에 言及한 “浮緩”의 脈이 『傷寒論』의 太陽中風의 “浮緩”之脈과 다르다는 것을 強調하고자 하여 插入한 말이다. 前者는 濕熱鬱閉於脾한 것을 주하여 表證이 보이지 않는 경우이고, 後者는 太陽中風을 주하여 表證이 보이는 경우이다. 丹波元簡은 이 部分에 대하여 “緩則爲痺之‘痺’字, 蓋以痺字之訛, 始與文義相葉, 顧以其訛作痺, 後人不辨, 遂補痺非中風一句也, 再按痺非中風一句, 推他文例, 當是風痺相搏四字”라고 主張하였는데 參考가 될 만하다.

“四肢苦煩, 脾色必黃, 瘧熱以行”은 黃疸의 病機에 대하여 한 층 더 깊이 論述한 것이다. 脾는 四肢와 肌肉을 주하고 生化의 源泉이 되는데 만약 濕熱互結하여 鬱閉於脾하게 되면 脾運失司하고 生化乏源하게 되어 四肢肌肉이 濡潤과 滋養을 잃어

四肢煩熱不舒의 症狀이 나타나 심한 苦痛을 느끼게 되므로 이를 “四肢苦煩”이라 한다. 또 黃은 土에 屬하고 脾臟의 本色이며 脾主轉輸하기에 四運之軸이 되는데, 만약 濕熱이 鬱閉於脾하게 되면 脾失轉輸하게 되어 濕熱이 周身에 泛溢하여 身黃이 나타나므로 이를 “脾色必黃”이라 한다. 以上을 통하여 보면 黃疸의 形成이 脾蘊濕熱로 因한 것이라고 分明히 밝히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瘧”에 대하여 『說文』에서는 “瘧, 積血也”라고 解釋하고 있는데, 唐容川이 말한 “凡氣分之熱, 不得稱瘧”가 이 뜻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瘧”과 “鬱”은 서로 通用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陸淵雷가 “瘧字又暗含鬱滯之意”라고 한 것과 『傷寒論』162條에 “傷寒瘧熱在裡, 身必黃, 麻黃連翹赤小豆湯主之”라고 한 “瘧”字에는 이와 같은 “鬱”字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따라서 “瘧熱以行”은 濕熱이 血이나 脾에 鬱滯되어 時日이 오래되면서 瘧가 된다는 뜻으로 理解할 수가 있다. 『張氏醫通·九卷』에 “以諸黃雖多濕熱, 然經脈久病, 不無瘧血阻滯也”라고 한 것도 이와 一脈相通한 것이다. 後世의 醫家들은 黃疸의 治療에 있어서 대개 “脾色必黃, 瘧熱以行”의 뜻을 따르고 있는데, 흔히 濕·熱·瘧에 立脚하여 脾를 다스리는 것을 要點으로 삼고 있다. 예를 들면 關幼波는 “陽黃의 治療는 여전히 清熱利濕을 常法으로 삼고 疏肝利水の 慣例를 重視하며 中焦를 다스리는 것을 要法으로 삼으면서 活血化瘧 및 化痰을 強調한다. 즉 治黃必活血하고 血行黃易去한다는 것이다”라고 明確하게 指摘한 바가 있다.

【原文 2】

趺陽脈緊而數(1)하니 數則爲熱하고 熱則消穀이오 緊則爲寒하고 食卽爲滿이라 尺脈浮爲傷腎이오 趺陽脈緊爲傷脾라 風寒相搏①하면 食穀②卽眩하고 穀氣不消하여 胃中苦濁(2)하고 濁氣下流하여 小便不通하고 陰被其寒(3)하여 熱流膀胱하여 身體盡黃③하니 名曰穀疸이라

額上黑하고 微汗出하며 手足中熱④하고 薄暮卽發(4)하며 膀胱急하여 小便自利⑤하니 名曰女勞疸이오 腹如水狀⑥이니 不治라

心中懊懣(5)而熱(6)하고 不能食하며 時欲吐하니 名曰酒疸이라

【校勘】

① 風寒相搏: 『千金』卷十第五에는 ‘搏’을 ‘薄’이라 하였다.

② 食穀: 『病源』卷十二의 ‘穀疸候’와 『千金』에는 ‘穀’이 모두 ‘畢’로 되어 있다. 즉 食畢이라 하여 食事後를 말하였다.

③ 身體盡黃: 『千金』에는 ‘體’가 ‘故’로 되어 있다.

④ 手足中熱: 『醫略』卷二에는 “手足心熱”로 되어 있으며, 尤怡는 “手足心熱, 病在裡在陰”이라고 說明하였다.

⑤ 小便自利: ‘自’는 잘못된 誤字로 마땅히 ‘不’이 되어야 한다. 『傷寒論』187條에 “若小便自利者, 不能發黃”이라 하였기에, 그 證據가 될 수 있다.

⑥ 腹如水狀: ‘腹’字다음에 ‘脹’字가 脫落된 것 같다. 뒤에 “日晡所發熱”이 나오는데 이에 根據하여 補充해야 할 것이다.

【字句解】

(1) 趺陽脈緊而數: 趺陽脈은 脾胃를 指稱하는 것인데, 喻昌은 “緊而且數, 而知脾胃合受其病”이라고 하였다.

(2) 胃中苦濁: 濁은 粘濁의 뜻이다. 尤怡는 “食穀不消而氣以鬱, 則胃中苦濁”한다고 說明하였다.

(3) 陰被其寒: 脾가 水濕之氣를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王冰은 “寒爲水氣”라고 註釋을 하였다.

(4) 薄暮即發: 薄暮는 해가 질 무렵이다. 『釋名·釋言語』에 “薄, 迫也”라 하였고, 『廣韻·二十陌』에 “迫, 近也”라 하였으며, 『十一暮』에 “暮, 日晚也”라 하였다. 李紘은 “薄暮屬陰, 薄暮即發, 陰虛生內熱也”라고 하였다.

(5) 懊懣: 懊는 한할 오, 懣는 괴로워할 너이다. 張璐는 『醫通·黃疸篇』에서 懊懣를 怫鬱로 고쳐 썼는데, 慧琳은 『音義』卷七十五에서 “怫鬱, 心不安也, 亦意不舒泄平也”라고 解釋하였다.

(6) 而熱: 아래의 두 條目的 “酒疸”에서 “熱”이 나오는데, 心中熱을 말하는 것 같다. 대개 酒의 積

熱이 上焦에 쌓이면 心中熱이 나타나게 된다.

【考察】

본 條文은 黃疸病의 病機, 分類, 主症에 대하여 論하고 있다. “趺陽脈緊而數, 數則爲熱, 熱則消穀, 緊則爲寒, 食卽爲滿. 尺脈浮爲傷腎, 趺陽脈緊爲傷脾”은 脈象으로부터 黃疸의 病機를 論한 部分이다.

趺陽脈은 胃를 살피는 脈인데 數脈은 胃中有熱을 主하고 胃熱이 盛하면 消穀易飢가 나타나므로 “熱則消穀”라고 하였다. 또 胃는 脾와 서로 表裏가 되기에 胃病하면 脾에도 影響이 미치게 되고, 脾는 陰土이고 喜燥惡濕하며, 趺陽脈이 緊한 것이 陰脈에 屬하고 寒濕을 主함으로 하여 脾土를 傷하기 쉬운데, 脾가 傷하여 運化失司가 發生하면 腹脹이 보이되 食後에 더 甚함으로 이를 “食則爲滿”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이 脾胃에 濕熱互結鬱蒸이 생김으로 하여 黃疸이 形成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尺脈浮爲傷腎, 趺陽脈緊爲傷脾”에 대한 各家의 主張을 보면 大體的으로 다섯 가지 說이 있다. 첫째: 이 條文이 脈象으로부터 女勞疸과 穀疸를 鑑別하는 것으로 前者는 腎虛이고 後者는 脾傷이라고 主張하는 說이다. 예를 들면 『金鑑』에 “若尺脈不沉而浮, 則爲傷腎, 腎傷病疸亦爲女勞疸也. 胃脈不緩而緊, 則爲傷脾, 脾傷病疸亦爲穀疸也”라고 하였다. 둘째: 脾熱腎寒으로 因하여 黃疸이 發生한 것이라고 主張하는 說로서, 예를 들면 『淺注』에 “腎脈浮, 趺陽脈緊, 爲腎寒脾熱, 亦能鬱而成疸”이라고 하였다. 셋째: 黃疸의 發生이 腎受風하고 脾受寒함에 의한 것이라고 主張하는 說로서, 예를 들면 『心典』에 “尺脈浮爲傷腎者, 風傷腎也; 趺陽脈緊爲傷脾者, 寒傷脾也, 腎得風而生熱, 脾得寒而生濕, 又黃疸之源也”라고 하였다. 넷째: 이는 註釋文에서 나타난 說인데, 예를 들면 『直解』에 “尺脈浮則精虛, 而腎氣有不固之象, 故知傷腎, 腎傷故趺陽以數見矣, 又脾陽得健則氣嘗溫暢, 而不至結滯, 趺陽脈緊則陽衰, 而脾氣有凝斂之象, 故知傷脾, 脾傷故趺陽脈以緊見矣, 二句是自注上文之所以寒熱互見也”라고 하였다. 다섯째: 이는 衍文에 나타난 說인데, 예를 들면 『今釋』에 “此二句, 蓋后人傍注,

傳寫者混入正文耳”라고 하였다. 五家の 說은 비록 모두 理致가 通하지만 前後의 條文을 살펴보면 첫째 說이 보다 正確하다고 할 수 있다.

“風寒相搏，食穀即眩，穀氣不消，胃中苦濁，濁氣下流，小便不通，陰被其寒，熱流膀胱，身體盡黃，名曰穀疸。”은 穀疸의 病機와 症狀에 대하여 說明한 部分이다.

穀疸의 形成原因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風寒相搏” 및 “陰被其寒，熱流膀胱”으로 즉 外感 邪氣로 穀疸이 發生하게 된 경우이다. 여기에서 “風寒”에 대하여 두 가지 解釋이 있는데, 하나는 外感을 統稱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風濕을 指稱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巢源』에 “黃疸一病，此由酒濕過度，……復爲風濕所搏”이라 하였다. 이 두 가지 解釋은 모두 따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陰被其寒”의 “陰”은 太陰脾를 가리키는 것이고, “寒”은 陰邪를 統稱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寒濕之邪 등이 그런 것이다. 寒邪犯脾하면 濕自内生하게 되고, 或은 濕邪가 犯脾하여 熱로 化하여 濕熱이 膀胱으로 흘러들게 되는데 이것을 “熱流膀胱”이라 한 것이다. 둘째는 “穀氣不消” 및 “胃中苦濁”으로 黃疸이 發生하는 경우이다. “穀氣”는 飲食을 가리키고, “不消”는 消化가 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飲食이 積滯되어 胃에 머물고 脾를 傷하고, 脾가 傷함으로 하여 濕由内生하고 濕以化熱하여 濕熱內蘊하여 아래로 膀胱에 流入하는데 즉 “濁氣下流”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濁氣는 精氣를 相對하여 부르는 것으로 實은 濕熱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두 種類의 原因이 穀疸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바로 “濕流膀胱”과 “濁氣下流”가 發生하므로 하여 膀胱氣化不利가 생기고 小便不通이 생겨 濕이 갈 곳이 없어 脾에 쌓여 食事후에는 반드시 頭眩을 일으키는 것이기에 “食穀即眩”이라고 한 것이며, 또 濕熱熏蒸하고 泛溢肌膚하는 故로 全身이 모두 黃色으로 되어 黃疸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黃疸의 形成과 病勢의 輕重은 주로 飲食과 크게 關係되므로 이름하여 穀疸이라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諸病源候論·黃疸諸侯』에서는 “谷疸之狀，食畢即眩，心胸不安而發黃，由失飢大食，胃氣衝熏所致”라고 하였다. 穀疸治療의 方藥에 대하여 張仲景은 言及이 없었는데, 『證治要訣·五疸證

治』에 나오는 煎茆花湯調五苓散을 投與할 수 있다.

“額上黑，微汗出，手足中熱，薄暮即發，膀胱急，小便自利，名曰女勞疸，腹如水狀”은 女勞疸의 症狀과 豫後를 說明한 部分이다. 女勞疸의 主症은 “額上黑”인데, “額”에 대하여 『靈樞·五色』에서는 “天庭”이라 하였고, 또 “庭者顏也”라고도 하였다. 따라서 “額”이 곧 “顏”임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黑”은 腎의 本色인데, 『靈樞·五色』篇에서는 “腎病者額與顏黑”이라 하였고, 本書의 『臟腑經絡先後病』章에서는 “色黑爲勞”라고 하였는데, 이로 보아 額上黑은 腎勞에 屬하고 다시 말하면 이것이 腎虛에 의한 發病임을 알 수가 있다. 尤怡는 “蓋腎熱上行而氣通於心也”라고 하였는데, 手少陰心經은 起於心中하고 入掌心하며, 足少陰腎經은 起於小趾之下하여 斜向足心하므로 腎虛生內熱하면 手足中熱이 나타나고 午後에 甚하게 되며, 또 虛熱이 迫津外出하는 故로 微汗出이 보인다. “膀胱急”은 小腹部의 拘急不舒를 가리키는데 이는 腎陰不足으로 因하여 小腹部가 濡潤을 받지 못하여 오는 것이며, “小便自利”는 女勞疸을 穀疸 그리고 以下에서 言及하는 酒疸과 區別을 하기 위하여 言及한 것으로서 女勞疸에는 濕熱內蘊이 없으나 穀疸과 酒疸은 모두 濕熱內蘊으로 發生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또 女勞疸에서 만약 腎虛로 脾가 傷하게 되면 腹脹滿如有水之狀의 症狀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脾胃敗虧에 屬한 것으로 治療가 어렵기에 “不治”라고 말한 것이었다.

“心中懊憹而熱，不能食，時欲吐，名曰酒疸”는 酒疸의 症狀에 대하여 說明한 部分이다. 酒疸은 持續的인 大量飲酒로 因하여 發生한 黃疸을 말하는데, 이에 대하여 尤怡는 “此得之飲酒過多所致，故名曰酒疸”이라고 하였다. 酒는 性熱之濕邪인 故로 濕熱이 內蒸하여 上熏於心하는 故로 心中懊憹而熱이 나타나고, 濕熱이 內盛하여 氣機의 升降이 妨害를 받아 濁氣가 上逆하고 胃氣가 不降하는 故로 不能食과 欲吐의 症狀이 나타나는 것이다.

本 條文에서는 黃疸을 穀疸, 酒疸, 女勞疸로 分類하였는데, 後世 醫家들의 分類를 보면 각각 다른 部分이 있었다. 예를 들면 『千金方·論證』에서는 “疸有五種，有黃汗，黃疸，谷疸，酒疸，女勞疸”이라

고 하였고, 『景岳全書·論證』에서는 “黃疸證, 古人多言爲濕熱, 及有五疸之分, 皆未足以盡之; 而不知黃之大要有四: 曰陽黃, 曰陰黃, 曰表邪發黃, 曰疸黃也”라고 하였다. 陽黃과 陰黃에 關하여서는 以下の 原文에서 모두 論述하였고, 表邪發黃은 『傷寒論』에 나오는 陽明病篇如麻黃連翹赤小豆湯證이 바로 여기에 該當이 되며, 또 『金匱要略』濕病篇第15條에서 外濕을 感하여 日久鬱以化熱하고 濕熱鬱蒸하면 則身色如熏黃이라고 한 것도 여기에 該當된다. 黃疸의 形成原因과 症狀에 대하여서는 『景岳全書·論證』에서 “凡大驚大恐及鬪毆傷者皆有之. 嘗見有虎狼之驚, 突然傷疸而病黃者, 其病則驟, 有酷吏之遭, 惑禍害之慮, 恐怖不已而病黃者, 其病則得. …… 其症則無火無濕, 其人則昏沉困倦, 其色則正黃如染, 凡此數證, 皆因傷膽, 蓋膽傷則膽其敗而膽泄, 故爲此證. 經曰: 膽液泄則口苦, 胃氣逆則嘔苦, 故曰嘔膽, 義猶此也”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한 黃疸은 廣義의인 黃疸로 보아야 할 것이다.

【原文 3】

陽明病 脈遲者食難用飽(1)하며 飽則發煩 頭眩
① 小便必難하니 此는 欲作穀疸이라 雖(2)下之라도 腹滿如故②하니 所以然者는 脈遲故也일새라

【校勘】

① 頭眩: 『太平聖惠方』卷五十五의 『治黃汗諸方』에는 “頭”가 “目”으로 되어 있다. 『脈經』卷八第九에는 “眩”아래에 “者”字가 있다.

② 腹滿如故: 위에서 “腹滿”이라고 言及한 적도 없는데 “如故”라 한 것은 上下不합이므로 『病源』에 근거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字句解】

(1) 食難用飽: 難은 두렵다는 뜻이 들어 있다. 『釋名·釋言語』에 “難, 憚也”라 하였고, “用飽”는 배불리 먹는 것을 말한다. 『荀子·禮論』에 “用, 謂用食也”라 하였다. 따라서 “食難用飽”는 밥을 배불리 먹는 것이 두렵고, 배불리 먹고 나면 곧 發煩, 頭眩 등 症狀이 나타나는 것을 意味한다. 余無言은 “食難用飽, 言不可飽食也”라고 하였다.

(2) 雖: 雖는 如의 뜻이 들어 있다.

【考察】

본 條文은 寒濕穀疸의 病機에 대하여 論하고 있다. 이 條文은 『傷寒論·辨陽明病脈證并治』에서 볼 수 있는데, 陽明病은 裡實熱證으로 脈이 대개 數한 편이고, 만약 實熱의 積滯로 陽氣가 阻滯되어 脈道가 不利하면 遲脈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이 때에는 마땅히 下法으로 治療해야 病이 除去된다. 그런데 下法으로 治療하였는데도 불구하고 腹滿의 症狀이 輕減되지 않고 如前한 것은 이 病證이 陽明裡實證이 아니고 寒濕蘊脾證에 屬한 것이기에 原文에 “雖下之, 腹滿如故, 所以然者, 脈遲故也”라고 한 것이다. 이로부터 본 條文에서 말한 “脈遲”는 寒濕이 脾에 있음으로 因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이에 대하여 吳謙 등은 『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金匱要略注』에서 “其證原從太陰寒濕鬱積而生, 若誤以陽明濕熱發黃以下之, 雖腹滿暫減, 頃復如故, 所以然者, 脈遲寒故也, 此發明欲作谷疸, 屬脾陰寒化 ……”라고 註釋하였다. 여기에서 注意해야 할 것은 “脈遲”는 오직 陰黃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예를 들면 『傷寒雜病論』에서 大承氣湯證에 脈遲가 보인다고 한 것만 해도 여러 군데 있었고, 또 桂枝湯證과 四逆湯證에도 모두 遲脈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하나는 裡實에 屬하고 하나는 陰陽失調에 屬하며 또 하나는 裡虛寒에 屬한 것이었다. 이 遲脈은 陰黃에도 보일 수가 있고, 陽黃에도 보일 수가 있는데, 그 遲脈의 形成原因은 寒濕이나 濕熱이 脈道를 阻滯하였기 때문이기에 臨證時에는 반드시 脈과 證을 合參해야 하지 절대로 脈에만 執着하여 病證을 論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脾에 寒濕이 있음으로 하여 運化가 失司되어 水穀을 腐熟할 수 없는 故로 飽食하는 것이 困難하고, 만약 飽食을 한 경우에는 氣機가 阻滯를 받아 清陽不昇하고 濁陰不降하게 되어 頭眩不舒而心煩의 症狀이 나타나게 되며, 또 脾病하면 즉 中氣不足이 되어 溲便爲之變하는 故로 小便難의 症狀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앞 條文에서 이미 濕熱로 因한 穀疸을 論하였고, 또 본 條文에서 寒濕도 역시 穀疸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으니

“此欲作穀疸”의 穀疸이 後世에서 말하는 陰黃에 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寒濕이 穀疸을 일으키는 病機에 대하여 汪苓友는 『傷寒論辨證廣注』에서 “脾胃受寒濕所傷，而色見於外”라고 解釋하였고, 張景岳은 『景岳全書·論證』에서 “寒濕困脾，脾不化血，故脾土之色，自見於外”라고 解釋하였으며, 蔣式玉은 『臨證指南醫案』의 按語에서 “陰黃之作，濕從寒化，脾陽不化濕，膽汁爲濕所阻，漬之於肝，浸淫肌肉，溢於皮膚，色如熏黃”이라고 解釋하였다. 이로 보아 陰黃은 寒濕困脾로 因하여 膽汁의 分泌에 影響을 끼쳐 發生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 條文에서 말한 陰黃을 일으키는 寒濕之邪는 外感에서 온 것으로 이에 대하여 『溫病條辨·卷二』에서는 “始卽寒濕，從太陽寒水之化”라고 하였다. 사실 陰黃을 일으키는 寒濕之邪는 患者가 平素부터 脾陽不足이 있어 外感濕邪하고 濕從寒化한데서 由來되거나 或은 陽黃이 오랫동안 낫지 않고 治療가 妥當하지 못한데서 由來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苦寒之品을 많이 썼다든지 또는 오래 썼다든지 또는 誤用했다든지 하여 脾陽이 점차 衰弱해지고 濕熱之邪以從寒化함으로써 形成하는 경우가 있다.

陰黃의 形成은 腎氣虧損 특히 腎陽不足과도 密接하게 關聯되어 있는데, 『醫壘元戎』에서는 이에 대하여 “一則寒水太過水來犯土，一則土氣不及水來凝之，多變此疾”이라고 說明하였고, 『溫病條辨』에서는 “濕久，脾陽消乏，腎陽亦憊”라고 하였다.

그 外에 陰黃은 흔히 肝까지 病이 미치기도 하고, 肝鬱血瘀는 陰黃의 자주 보이는 病理이기도 하다. 이것이 바로 『張氏醫通·雜門』에서 말한 “諸黃……久病，無不瘀血阻滯也”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본 條文에서는 陰黃의 證治에 대하여言及을 하지 않았지만 그 證治의 關鍵이 辨證에 있음을 알 必要가 있다. 어떤 學者들은 陰黃의 辨證의 要點이 “色黃晦暗”과 “脈遲”에 있다고 여기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喻嘉言은 『醫門法律·黃疸』에서 “今人單云陽疸色明，陰疸色晦，此不過氣血之分，辨之不清，轉是誤人，如酒疸變黑，如女勞疸額上黑，豈以其黑遂陰疸，可用附子乾薑乎”라고 하면서 陰黃의 證治에 있어서는 全身의 症狀과 舌苔脈象의 特徵을 全體의 으로 살펴야 한다고 警戒하였

다. 또 王海藏은 『醫壘元戎』에서 “陰黃其症身冷，脈沉，身如熏黃，色黯……”이라 하였고, 羅謙甫는 『衛生寶鑑·陰證』에서 “皮膚涼，背惡寒，身冷，目不欲開，身體重，懶言語，自汗，面黃如桃李枝色，心下硬，按之痛，腹滿，大便澁，惑大便了而不了。脈緊惑其脈遲而細”라고 仔細하게 症狀을 記載하였다. 이상의 王氏와 羅氏가 身冷，皮膚涼，背惡寒，遍身冷의 症狀을 強調한 것과, 『醫學心悟·第四卷』 그리고 『醫醇勝義』등 著書에서 陰黃의 主症에 대한 記錄에 모두 身涼이 있는 것을 보아 畏寒身涼이 陰黃의 主症의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또 이것이 陰黃과 陽黃을 鑑別하는 하나의 要點이라고도 볼 수 있다.

【原文 4】

夫病酒黃疸은 必小便不利하고 其候①는 心中熱足下熱하니 是其證也②라

【校勘】

① 其候: 『千金』卷十第五에는 “候”字아래에 “當”字가 있다.

② 是其證也: 『翼方』卷十八의 「黃疸候」에는 “證”이 “候”로 되어 있다.

【考察】

본 條文은 酒疸의 主症에 대하여 進一步로 論하고 있다. 酒의 性은 陽에 屬하고 熱에 屬하면서 그 質은 陰에 屬하고 水(濕)에 屬하므로 飲酒過度하면 水濕과 熱이 內蘊하고 膀胱으로 下流하여 氣化失常을 일으켜 小便不利가 나타나게 된다. 小便不利가 나타나면 濕熱이 갈 길이 없어져 脾와 胃에 鬱滯되는데, 胃의 脈은 足下跗를 貫通하는 故로 足下熱이 나타난다. 이는 原文第2條의 女勞疸에서 보이는 “手足中熱”의 發生原理와 다르다. 前者는 濕熱內蘊脾胃하여 發生하는 것이고, 後者는 腎陰不足하여 發生하는 것이다. 濕熱內蘊於胃하게 되면 胃脘속이 灼熱不舒하는 症狀이 나타나는데 즉 原文에서 말한 “心中熱”이다. 이는 原文第2條의 酒疸에서 보이는 “心中懊憹而熱”의 發生原理와 同一한 것으로 前者가 後者보다 症狀이 甚한 편에

屬하며, 原文의 “小便不利”라는 말은 酒疸의 病機가 濕熱內蘊 및 膀胱氣化不利에 있음을 밝혀주는 同時에 또 酒疸에는 반드시 小便不利 즉 말하자면 澁少의 主症이 있어야 한다는 뜻도 있다. 물론 酒疸에는 반드시 濕熱熏蒸於內로 인한 身黃과 目黃 그리고 澁黃이라는 主症이 보여야 하는 것이다.

【原文 5】

酒黃疸者①는 或無熱하고 靖言了了②하며 腹滿 ③欲吐하고 鼻燥라 其脈浮者는 先吐之하고 沈弦者는 先下之하라

【校勘】

① 酒黃疸者: 『千金』卷十第五에는 “夫人作酒黃疸者”로 되어 있다.

② 靖言了了: 『衛生寶鑑』卷十四의 「黃疸」에는 “靖”이 “靜”으로 되어 있다. 또 『醫門法律』卷六의 「黃疸門」에는 “清”으로 되어 있는데, 세 글자는 뜻이 서로 通한다.

③ 腹滿: 趙刊本과 寬政本에는 “腹”字위에 “小”字가 있다. 『直解』와 『金鑑』도 이와 同一하다.

【字句解】

(1) 靖言了了: 말하는 것이 똑똑하고 分明함을 意味한다.

【考察】

본 條文에서는 酒疸의 症狀을 다시 論하면서 脈象에 따른 治法도 論하였다. 酒疸은 濕熱內蘊으로 인한 것으로 만약 濕熱이 上焦하면 鼻燥가 보이고, 만약 濕熱이 中焦에 鬱滯되고 氣機가 阻滯되어 氣가 上逆하면 腹滿과 欲吐의 症狀이 보이며, 또 酒疸의 濕熱은 內에 鬱滯되어 있는 故로 表熱의 症狀은 보이지 않는다.

이 病에서 만약 浮脈이 나타나면 病이 上部에 있는 것으로 마땅히 먼저 吐法으로 治療해야 하는데 瓜蒂散을 쓸 수 있고, 만약 沉弦脈이 나타나면 病이 裡에 있고 下部에 있는 것으로 먼저 下法으로 治療해야 하는데 梔子大黃湯을 쓸 수 있다. 여기에서 吐法과 下法을 쓰는 것은 모두 病邪가 머

문 部位에 根據하여 確定하는 것으로 因勢利導之法에 屬한 것이다.

原文에서 言及한 “先吐”와 “先下”는 一時的인 措置일 뿐, 吐와 下의 效果를 거둔 뒤에는 急則治其標하고 緩則治其本하는 原則에 따라 該當한 治法을 다시 確定해야 하는데, 總的으로 말하면 脈과 證을 合參하여 辨證論治해야 治療의 時期를 놓치지 않고 理想的인 效果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靖言了了”는 言語의 混亂이 없이 말이 똑똑함을 形容한 것인데, 이것은 濕熱이 化生되었지만 아직 위의 清宮을 犯하지 않았음을 意味한다.

【原文 6】

酒疸에 心中熱하니 欲嘔者는 吐之①愈라

【校勘】

① 吐之: 『脈經』에는 “之”字아래에 “卽”字가 있다.

【考察】

본 條文에서는 위의 세 條文에 이어 다시 酒疸의 證治를 論하고 있다. 酒疸은 過量의 飲酒로 因하여 濕熱이 中焦에 內蘊함으로 하여 胃氣上逆을 일으켰기에 心中熱欲吐의 症狀이 나타난 病症인데, 이 때에는 邪氣가 上部에 있고 또 欲吐의 症狀이 보여 邪氣가 위로 밖으로 뚫고 나오려는 趨勢가 있는 것이기에 吐法을 써서 因勢利導하는 것이다. 그래서 原文에서 “吐之愈”라고 한 것이다.

이상의 세 條文은 모두 酒疸의 症狀과 治法을 討論한 것으로, 第四條는 第二條의 症狀에 대한 補充이고, 第五條는 酒疸에서 보기 드물고 比較的 重한 症狀을 補充하면서 酒疸治療에 吐法과 下法을 使用하여 因勢利導함으로써 邪氣를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을 論하였으며, 第六條는 酒疸에서 吐法을 써서 治療할 수 있는 症狀을 좀 더 補充하였다. 酒疸의 主症狀으로 輕한 者는 身黃, 目黃, 澁黃且不利, 心中懊憹而熱, 足下熱, 不能食, 時欲吐 등이 보이고, 重한 者는 이 外에 腹滿, 鼻燥 등 症狀도 보인다. 본 病症에서 泄下 或은 催吐하는 方劑는 각각 梔子大黃湯, 大黃芒硝湯, 梔子豉湯, 瓜

帶湯 등이다. 『刪繁方』을 보면 “服訖，吐出黃水”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古人들이 確實히 吐法으로 黃疸를 治療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酒疸의 具體的인 治療方藥에 대하여 張仲景은 言及을 하지 않았고, 戴思恭은 『證治要訣·五疸證治』에서 “酒疸，因飲酒過傷而黃，……宜乾葛煎湯或梔子仁煎湯調服五苓散，或生料五苓散加乾葛一錢”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處方에는 “藿樞飲”을 습하여 함께 달여 服用해도 된다. 藿樞飲은 藿香葉, 枇杷葉, 桑白皮, 陳皮, 葛根, 白茯苓, 鷄婁子, 酒, 黃連丸으로 構成되었는데 參考로 할 수 있다.

【原文 7】

酒疸下之久久爲黑疸하니 目靑面黑①하고 心中如啖蒜齏狀(1)하고 大便正黑하고 皮膚爪之不仁②(2)하며 其脈浮弱하니 雖黑微黃이라 故知之라

【校勘】

① 目靑面黑: ‘靑’字는 衍文으로, 『病源』卷十二의 ‘穀疸候’에는 “面目黑”으로 되어 있다.

② 爪之不仁: 『外台』卷四에는 “爪之”가 “抓之”로 되어 있다. 慧琳의 『音義』卷二十七에 “爪有作抓”라고 하였다.

【字句解】

(1) 心中如啖蒜齏狀: 蒜齏는 가능게 설은 마늘로 서 食後에 胃속에 辛辣灼熱의 感이 있음을 말한 다.

(2) 爪之不仁: 꼬집고 긁어도 痛痒을 느끼지 못함 을 意味한다.

【考察】

본 條文에서는 酒疸의 治療에 있어서 下法을 잘 勿 使用하여 黑疸로 轉變하는 경우를 說明하였고, 또 黑疸의 症狀에 대해서도 論하였다. 위의 原文에 따르면 酒疸을 治療할 때에 下法을 쓸 수 있 다 고 하였지만 만약 下法治療가 妥當치 못한 경우 에 는 흔히 黑疸을 일으키게 된다. 黑疸은 陰黃의 極 에 屬하는데, 그 形成原因에 대하여 黃元御는 『金匱懸解』에서 “酒疸下之敗其脾陽，久而寒水侮土變爲黑疸，……一藏堙鬱而木氣不達也，下后土敗陽

虧，水邪上凌，木鬱濕土之中則見黃色，木鬱寒水之內則見黑色，木氣自鬱則見靑色”이라고 說明하였다. 여기에서 黃元御는 脾陽弱, 腎臟虧, 肝虛氣鬱이 黑疸을 일으키는 原因이라고 強調하고 있다. 사실 黑疸의 形成은 瘀血內停과 密接하게 關聯되어 있 다. 氣血運行은 陽氣의 推動을 必要로 하는데, 만 약 脾腎陽虛하고 肝鬱氣滯하게 되면 血行이 阻 碍을 받아 瘀血이 停滯하게 되면서 黑疸로 된다. 臨 床觀察을 통하여 보면 酒疸을 治療하다가 下法을 잘 勿 쓴 경우에만 黑疸로 變하는 것이 아니 라, 모든 黃疸病 예를 들면 穀疸病이 오랫동안 治癒되 지 못하여 脾腎의 陽氣가 損傷되고 肝虛氣鬱로 瘀 血停滯가 생겨도 모두 黑疸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이다. 이에 關하여 巢元方은 『諸病源候論·黑疸候』에서 “夫黃疸，酒疸……久久變爲黑疸”이라고 하 였는데, 이는 臨床實際와 매우 符合되는 것이다. 肝과 腎의 本色은 각각 靑色과 黑色으로, “目靑面黑”은 肝腎虧損에 의한 것이고 氣血瘀滯의 象에 屬한다. 尤在涇은 “酒疸……濕熱乘虛陷入血中，則變爲黑疸”이라고 하였는데, 이로 보아 黑疸은 비록 脾腎陽虛하고 肝損氣鬱에 의한 것이지만 아 직 濕熱이 남아있고 濕熱熏蒸이 있기에 黑疸에 걸 린 者는 皮膚色이 “雖黑微黃”의 特徵을 띄게 되는 것이며, 濕熱이 瘀血을 끼고 中焦에 內蘊하고 있 으면 “心中如啖蒜齏狀”의 症狀이 나타나며, 脾가 虛하여 統血之功을 喪失하면 血積成瘀하게 되기에 黑疸病에는 “大便正黑”의 症狀이 보이며, 瘀血內停 함으로써 氣血이 不能外榮하게 되면 “皮膚爪之不仁”의 症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또 注意해야 할 點이 있는데, 즉 濕熱 發黃과 寒濕發黃, 그리고 女勞疸과 黑疸에 있어서 모두 皮膚色黃이 보이는데, 後의 두 病症에서는 또 皮膚色黑의 症狀도 兼하여 보인다. 具體的으로 그 皮膚色을 어떻게 區別해야 하는가의 問題에 대 해서는 劉河間과 喻昌의 說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劉河間은 『河間六書·論證』에서 이 問題에 대하여 “大抵凡諸黃者有二，一則氣鬱濕熱而黃，萬物皆然；又如麥秀而黔雨，濕熱過及而黃疸也。及水勞六氣濕熱，則草木將死而色變黃者。惑病血液衰，則虛，燥熱太盛，而身面萎黃者，猶亢旱而草木痿黃也”라고 說 明하였고, 喻昌은 『醫門法律·黃疸』에서 “女勞疸額

上黑, 謂身黃加以額黑也. 黑爲北方陰晦之色, 乃加於南方離明之位, 此必先有胃熱脾寒之濁氣, 下流入腎, 蓋以女勞無度而后成之, 其繇來自非一日”이라고 하였고, 또 “酒疸之黑, 與女勞疸之黑, 殊不相同, 女勞疸之黑, 爲腎氣所發, 酒疸之黑乃營血腐敗之色, 營者, 水穀之精氣, 爲濕熱所瘀而不行, 其光華之色轉爲晦黯 ……”이라고 說明하였다.

臨床의 實際와 結合하여 본다면 濕熱 및 寒濕發黃은 곧 陰黃과 陽黃인데, 그 色의 鑑別에 대해서는 더 이상 論할 必要가 없다. 問題는 女勞疸과 黑疸의 皮膚色의 黑과 黃을 鑑別하는 것이 어려운 것인데, 要約하여 말한다면 前者는 흔히 灰黑色을 띄고 輕한 者는 額上에만 黑色이 보이고 重한 者는 全身과 目에 모두 黑色이 보이며 顔面에는 光澤이 없다. 그리고 皮膚의 黃色은 주로 黑色이 나타나기 전에 出現하고 萎黃의 特徵이 있으며, 目과 小便에는 黃色을 띄지 않는다. 그런데 後者의 경우에는 黑色이 보이되 흔히 晦滯한 黑色으로 나타나고, 輕한 者는 연기와 같은 灰色으로 보이고 重한 者는 灰土色으로 보이며, 그 나타난 黃色은 흔히 연기에 조금 그을린 듯한 特徵이 있으면서 光澤이 없고 또 黑色과 同時에 보이는 特徵이 있다. 그러나 만약 黑疸이 날로 恢復되어 가는 段階에 있으면, 특히 顔面部의 皮膚色이 正常에 가까워진 이후에 額上과 下頰에만 黑色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女勞疸의 輕症과 皮膚色만으로는 區別하기 어렵다. 이는 黑疸의 濕熱이 이미 없어지고 다만 腎(脾)陽이 恢復되지 않고 瘀血을 끼고 있으며, 또 病이 그리 甚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說은 다만 臨證時에 다소 參考가 되게 하기 위하여 言及한 것이다.

그리고 黑疸의 治法에 대하여 張仲景은 비록 言及이 없었지만 以上の 考察에 根據하면 『張氏醫通·雜門』에서 “補肝腎(脾)爲主, 化瘀濁爲輔, 可用八味, 六味丸合『雜病源流犀燭』中の黑疸方(方由茵陳, 括藎根組成), 臨證時遇寒凝血瘀, 脾氣不運者, 可用大黃附子湯去細辛加肉桂, 惑四君子湯合硝石礬石丸”이라고 한 것이 妥當한 治法이라고 할 수가 있다.

【原文 8】

師曰 病黃疸에 發熱煩喘하고 胸滿口燥者가 以病發①時에 火劫其汗(1)하면 兩熱所得이라 然이나 黃家所得②은 從濕得之니 一身盡發熱③而黃하고 肚熱하니 熱在里니 當下之라

【校勘】

① 病發: 『脈經』卷八第十五에는 “發病”으로 되어 있는데, 보다 妥當하다.

② 黃家所得: 『衛生寶鑑』卷十四의 「黃疸門」에는 “家所得”라는 세 글자가 “皆”자로 되어 있고 아래 文章과 바로 連結되어 있다.

③ 一身盡發熱: 『衛生寶鑑』에는 “身”아래 “盡”字가 없다.

【字句解】

(1) 火劫其汗: 艾灸나 燒鍼 또는 熱熏의 方法으로 強迫的으로 몸에서 땀이 나게 하는 것을 이른다.

【考察】

본 條文에서는 黃疸治療에 있어서 “火劫”의 治法을 잘 못 使用한 것을 論하고 있다. 黃疸病에서 만약 病의 外發之勢가 보이거나, 或은 表證이 보일 때에는 汗法을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汗法이 妥當하지 못하다. 이는 黃疸病이 대개가 從濕化熱에 의하여 發病한 것인 만큼 만약 火劫之法을 誤用하여 發汗시키면 病이 解除되지 못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火邪가 濕熱을 도와 보다 甚한 濕熱鬱蒸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原文에서 말한 “兩陽相得”인데, 즉 熱이 盛해지는 것으로 發熱, 煩喘, 胸悶, 口燥 등 症狀이 發生한다. 이 때에는 黃疸病의 病勢가 加重되어 全身의 發熱로 轉化되어 熱勢가 極盛에 이르러 氣機가 壅塞되어 腹脹이 생기는데, 이는 熱이 裡에 있는 것으로 마땅히 裡熱을 下泄하여 邪氣가 下部로부터 排出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 때에 濕을 除去하는 것도 疏忽히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로 因해 熱이 除去되기 어려워진다.

그리고 原文 “以病發時”의 “病”字에 대하여 歷代 醫家들은 두 가지의 見解를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가 曹穎甫를 代表로 하는 것으로 이들은 그 “病”이 黃疸病未發之前의 기타 熱性病이라고 主張

하고 있다. 曹氏는 具體的으로 “黃疸所由成, 胃熱與脾濕相參雜者多, 獨有發熱, 煩渴, 胸滿, 口燥之症, 爲亢熱而無濕, 推原其故, 則以方遘他病時, 病屬陽熱, 復以火劫發汗, 兩熱相得, 便與濕熱參雜之證, 判若天淵, 概云從濕得之可乎”라고 說明하였다. 曹氏의 이 說을 認定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은 편이다. 그런데 『傷寒論』第6條를 보면 “風濕爲病……若被火劫者, 微發其黃”이라고 하였고, 또 第11條에는 “太陽中風, 火劫發汗……兩陽相熏灼, 其身發黃”이라고 한 것이 있다. 또 陳修園은 “濕熱相合者, 爲疸之常, 獨熱在裡, 爲疸之變”이라고 明確하게 指摘한 바가 있다. 이상을 보면 이와 같은 主張을 하는 醫家들이 根據로 삼는 것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두 번째는 『金匱要略通俗講話』를 代表로 하는 것으로 이들 醫家들은 이를 “黃疸病初起”라고 보면서 이 때에는 “每有發熱症狀, ……誤以火劫發汗, 在裡之熱不得外解, 反而增劇, 故曰‘兩熱相得’, 熱傷血分, 遂發黃疸”한다고 論하고 있다. 이 主張도 역시 臨床實際에 符合되는 것으로 認定하는 사람이 比較的 많은 편이다. 이상을 통하여 總括하면 두 가지 說은 모두 일리가 있어 共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然黃家所得, 從濕得之”에 대하여서는 各註釋家들이 많은 認識의 差異를 보이고 있었다. 첫 번째는 火劫發黃에는 반드시 濕이 있다는 主張인데, 예를 들면 徐彬은 이에 關하여 “燥火不能遽使人黃也, 凡黃必因濕鬱, 故又概言黃家所得, 從濕得之, 謂火不與濕竝, 不能作黃耳”라고 說明하고 있다. 두 번째는 火劫發黃에 반드시 모두 濕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主張인데, 예를 들면 程雲來는 이에 關하여 “此概言黃疸有因誤火而得之證, 又辨其濕熱相合者, 爲疸病之變, 使人分別論治也”라고 說明하였다. 그 외에 陸淵雷는 이들과 달리 “舊注多一串說下, 謂火劫成黃, 必夾內濕之故, 殆非是, 蓋溶血症血色素淋漓之發黃, 其小腸竝無吸收障礙, 不得爲內濕也”라고 主張하였다. 이상의 세 가지 說은 모두 各自의 理致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 徐彬은 濕熱黃疸에 대하여 論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程氏와 陸氏는 萎黃에 대하여 論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三者는 모두 臨床과 符合되므로 參考價値가 있는 것이다. 臨床에서는 흔히 溫

陽法으로 治療를 하는데, 附子와 乾薑 등을 投與하여 振奮中陽하고 助脾化濕함으로써 狹義의 黃疸病으로 오래된 者에 대하여 좋은 退黃效果를 거둘 수 있다. 이것은 바로 “然黃家所得, 從濕得之”라는 말에서 啓示를 받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治法을 應用할 때에는 반드시 正確한 辨證을 基礎로 해야 하고, 또 자주 芳香化濕(濁), 清熱解毒, 理氣消痞, 涼血通便 등 治法과 配合하여 應用함으로써 標本兼顧하고 扶正祛邪해야 좋은 效果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原文 9】

脈沈 渴欲飲水 小便不利者는 皆發黃이라

【考察】

본 條文은 濕熱發黃에 대하여 論하고 있다. 脈이 沈하면 病이 裡에 있는 것으로 濕熱內蒸으로 因하여 氣機가 鬱滯되어 發生한 경우인데, 濕熱內蘊하고 熱盛傷津하는 故로 “渴欲飲水”의 症狀이 보이고, 濕熱이 壅阻上焦하여 氣化失司하게 되면 “小便不利”의 症狀이 보이며, 濕熱이 內藏되어 外로 出路가 없으면 흔히 全身을 鬱蒸하여 皮膚가 發黃하게 되는 故로 “皆發黃”이라고 하였으며 이 때에는 洩黃과 目黃이 함께 보인다. 본 條文에 대하여 各 醫家의 註釋은 大體的으로 同一한데, 다만 陳修園이 이 條文이 黃疸의 早期診斷에 있어서 一定한 參考價値가 있다고 하였는데, 具體的으로 그는 “疸病將未成, 必有一二證而可卜之. 凡病在里脈沉, 里熱則渴欲飲水, 飲水多而小便不利者, 水無去路則鬱於里而爲濕, 濕與熱合, 交相爭鬱, 皆可卜其發黃”이라고 說明하였다. 熱渴과 小便不利는 단지 熱이 보다 盛한 濕熱黃疸을 診斷하는 根據의 하나일 뿐이다.

【原文 10】

腹滿① 舌痿黃②(1) 燥不得睡는 屬黃家라

【校勘】

① 腹滿: 『衛生寶鑑』卷十四의 「黃疸論」에는 “腹”

字 아래에 “脹”字가 있다.

② 舌痿黃: 『衛生寶鑑』에는 “舌”字가 “面”字로 되어 있다. 葉霖은 “痿”字를 “萎”字로 고쳐야 한다고 하였다.

【字句解】

(1) 痿黃: 즉 萎黃이며, 乾黃이란 뜻으로 볼 수 있다.

【考察】

본 條文의 內容에 대한 各 醫家가 보는 見解는 각각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어떤 醫家는 본 條文이 寒濕發黃(陰黃)에 대하여 論述한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丹波元簡은 이에 대하여 具體的으로 “案痿黃, 卽萎黃, 謂身黃不明潤”이라고 說明하였고, 어떤 醫家는 濕熱發黃(陽黃)에 대하여 論述한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陳修園은 “脾之病位在腹, 脾之脈絡連舌本, 散舌下, 若腹滿舌萎黃, 是脾有濕而不行矣; 又胃不和則臥不安, 若躁不得睡, 是胃有熱而不和矣. 濕熱相合爲屬黃家”라고 說明하였다. 또 어떤 醫家는 虛熱發黃(虛黃)에 대하여 論述한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趙以德은 “血少榮微”하면 즉 萎黃이 發生한다는 見解를 提起하였다. 丹波氏와 趙氏의 說은 모두 “痿”字 하나에 眩惑되었는데, 그들은 極熱液涸에 의해서도 痿가 올 수 있다는 것을 忘却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본 條文은 黃疸病에 있어서 腹滿, 舌萎黃, 燥不得眠 등과 같은 症狀도 올 수 있음을 論한 것으로 具體的으로 어떤 原因에 의하여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字나 한 症狀에 拘碍받아 斷言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原文 11】

黃疸之病은 當以十八日爲期니 治之十日以上하면 痿①하고 反劇爲難治라

【校勘】

① 治之十日以上痿: 『衛生寶鑑』卷十四의 「黃疸論」에는 “上”字 아래에 “宜”字가 있는데 이를 根據로 補充해 넣어야 한다. 그리고 “宜痿”는 “反劇”과

서로 對句가 되는 말이다.

【考察】

본 條文에서는 黃疸의 豫後에 대하여 論하면서 早期治療의 重要性을 말해주고 있다. 黃疸病의 豫後에 대한 判斷은 보통 18日을 期限으로 삼는데, 만약 適切한 治療를 하여 10日 左右가 지나면서 病勢가 減退되면 이는 邪氣가 곧 물러가고 病이 곧 낮게 될 徵兆로 볼 수 있고, 만약 正確한 治療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0日 左右가 지나면서 病勢가 오히려 加重되면 이는 邪氣가 날로 旺盛해지고 正氣가 損傷된 것으로 病이 治療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 豫後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黃疸之病, 當以十八日爲期”라고 한 理由를 살펴 보면 주로 세 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 첫째는 “十八日”이란 期間이 土旺之期라고 說明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尤在涇은 『金匱要略心典』에서 “土無定位, 寄旺於四季之末各十八日. 黃者土氣也, 內傷於脾, 故卽以土旺之數, 爲黃病之期, 蓋謂十八日脾氣至而虛者當復, 卽實者亦當通也. 治之十日以上痿者, 邪淺而正勝之, 則易治, 否則邪反勝正而增劇, 所謂病勝臟者也, 故難治”라고 說明하였다. 둘째는 “十八日”이란 期間이 陰數之期로 病이 잘 낫는 期限이라고 解釋한 것이다. 예를 들면 沈明宗은 『金匱要略編注』에서 “此取陽病陰和, 陰病陽和之大綱也, 十八乃三六, 陰數之期也, 十日二五, 陽土之數也, 黃疸乃濕熱鬱蒸, 陽邪亢極, 脾陰大衰, 故治之需候一六, 二六, 三六, 陰氣來復, 制火之期, 而爲定期”라고 說明하였다. 셋째는 “十八日”이란 期間이 一氣有餘라고 解釋한 것이다. 예를 들면 徐彬은 『金匱要略論注』에서 “黃疸之病過三候而氣一變, 五日爲一候, 十五日爲一氣, 若十五日又加三日, 則爲十八日, 一氣有餘, 未滿四候, 愈則竟愈, 故曰爲期”라고 說明하였다.

본 條文에서 濕熱黃疸에 대하여 18日을 期限으로 豫後를 推理하고 判斷한다고 提起한 것은 張仲景의 臨床經驗의 結論인데, 이는 現代의 일부 傳染性黃疸型肝炎(예를 들면 甲型肝炎)의 豫後判斷과 大體的으로 符合된다. 그러나 18日이란 期限은 大略的인 期間으로 여기에 너무 拘碍받아서는 안

된다.

【原文 12】

疸而渴者는 其疸①難治오 疸而不渴者는 其疸可治라 發於陰部하면 其人必嘔오 陽部②면 其人振寒而發熱也라

【校勘】

① 其疸: 『千金』卷十第五에는 “其病”으로 되어 있다.

② 陽部: 위의 “陰部”의 原文과 比較해 보면 “陽部”앞에 “發於”라는 두 글자가 脫落되었다. 마땅히 『脈經』卷八第九와 『病源』卷十二의 「黃疸候」, 그리고 『千金』에 根據하여 補充해야 한다.

【考察】

본 條文은 臨床表現을 통하여 黃疸의 豫後를 論하고 있다. 黃疸病에서 口渴이 보이되 만약 찬 것을 즐겨 마시면 이는 濕熱化燥의 徵候로 熱勢가 비교적 甚하고 津液이 이미 虧損되었음을 意味하는 것이고, 만약 따뜻한 것을 즐겨 마시면 이는 濕熱之邪가 寒으로 化하여 脾陽을 傷함으로써 氣虛가 되어 津液을 輸布하지 못함을 意味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口渴 症狀이 보이는 두 種類의 黃疸病은 모두 正氣가 衰弱해진 것이므로 治療하기가 어렵기에 原文에서 “疸而渴者, 其疸難治”라고 하였다. 만약 黃疸病에 있어서 口渴이 보이지 않으면 이는 裡熱이 甚하지 않고 正氣가 損傷되지 않았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으로 이 때에는 黃疸治療가 어렵지 않기에 原文에 “疸而不渴者, 其疸可治”라고 하였다. 朱丹溪도 『丹溪心法·疸』에서 이 問題에 대하여 “腎水枯竭, 久而面黑黃色及有渴者不治, 不渴者可治”라고 말하였다.

본 條文의 “疸而渴者, 其疸難治; 疸而不渴者, 其疸可治”에 대하여 各 醫家의 註釋은 大體의 同 같은데, 단지 “陰部” 및 “陽部”에 대한 解釋은 서로 다른 見解를 보이고 있었다. 趙以德은 脾胃로 陰陽을 나누었고 嘔와 寒으로 表裏를 나누었는데, 그는 『金匱方論衍義』에서 이 問題에 대하여 “陰部者, 脾太陰也, 陽部者, 胃陽明也, 熱甚於里則嘔, 熱

在於表則發熱振寒”라고 說明하였다. 尤在涇은 臟腑는 陰에 屬하고, 軀殼은 陽에 屬한다고 하였는데, 그는 『金匱要略心典』에서 이 問題에 대하여 “陰部者, 里之臟腑, 關於氣, 故嘔; 陽部者, 表之軀殼, 屬於形故振寒而發熱”이라고 說明하였다. 沈目南은 胸膈胃腸이 陰에 屬하고, 皮殼이 陽에 屬한다고 하였는데, 그는 『金匱要略編注』에서 이 問題에 대하여 “邪在胸膈胃腸之里爲發陰部, 內逆上衝其人必嘔, 其邪盡發皮殼之表爲陽部, 乃太陽所主, 故振寒而發熱也”라고 說明하였다.

이상의 諸 說에 의하면 陰部란 臟腑로서 脾胃를 가리키는 可能性이 크고, 陽部는 肌表로서 主要 榮衛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黃疸病의 豫後에 대하여 第11條文에서는 正氣의 盛衰, 第12條文에서는 津液損傷의 有無에 着眼하여 討論하고 判斷하고 있었다.

治療하기 어려운 黃疸病에 대하여 『證治匯補』에서는 또 脾胃機能의 盛衰에 着眼하여 論述하였는데, 具體的으로는 “如寸口近掌處無脈, 口鼻皆冷, 泄利嘔噦, 胃氣已脫者死, 環口黧黑, 汗出如油, 脾氣已決者死, 面色黑色, 搖頭直視者死, 脈微小有神, 小便利而不渴者生, 口渴者死”라고 說明하였다.

【原文 13】

穀疸之爲病①은 寒熱不食하고 食卽頭眩하며 心胸不安하고 久久發黃爲穀疸하니 茵陳蒿湯主之라
茵陳蒿湯方
茵陳蒿六兩 梔子十四枚 大黃二兩
右三味를 以水一斗에 先煮茵陳하고 減六升하면 內二味하여 煮取三升하면 去滓하고 分溫三服이라 小便當利하고 尿如皂角汁狀하고 色正赤하면 一宿腹減하고 黃從小便去也라

【校勘】

① 穀疸之爲病: 尤注本에는 “之”字아래에 “爲”字가 없다.

【考察】

본 條文에서는 濕熱證에 屬한 穀疸의 證治를 論하고 있다. 穀疸의 形成原因은 原文2에서 말한

“風寒相搏” 및 “穀氣不消”인데, 다시 말하면 이로 인하여 脾胃가 運化失司하게 되고 濕熱內蘊하게 되어 黃疸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寒熱”의 症狀이 보인다고 하였는데, 이 寒熱은 臨床의 所見을 結合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이를 發熱惡寒으로 보는 것인데, 이는 一般 表證에서 보이는 發熱惡寒과 다른 것으로 이에 대하여 魏念庭은 『金匱要略本義』에서 “此寒熱由內發外, 與表邪無涉”이라고 說明하였다. 이와 같은 發熱惡寒은 榮衛之源이 濕熱로 인해 壅滯되어 發生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를 寒熱往來로 보는 것인데, 즉 濕熱이 少陽에 壅滯되어 少陽樞機가 不利하게 됨으로써 發生하는 것이다. 그리고 濕熱이 脾에 內蘊하여 運化失司가 되면 食減 심지어는 不食의 症狀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昇清降濁의 機能이 異常해진 狀況에서 억지로 飲食을 攝取하며 즉 頭眩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濕熱이 內蘊하거나 또는 上衝하게 되면 氣機不暢이 發生하여 心胸不安의 症狀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 濕熱이 內蘊하여 時日이 오래 되고 瘀血도 除去되지 못하면 나아가서 黃疸을 일으키기도 한다. 故로 原文에서 “久久發黃爲穀疸”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原文 14】

黃家①가 日晡(1)所發熱 而反惡寒②하면 此爲女勞得之③라 膀胱急④하고 少腹滿하며 身盡黃⑤하고 額上黑⑥하며 足下熱은 因作黑疸⑦하니 其腹脹如水狀하고 大便必黑⑧하며 時澇하니 此女勞之病이오 非水也라 腹滿者難治니 硝石礬石散主之라

硝石礬石散方

硝石 礬石燒 等分

右二味를 爲散하야 以大麥粥汁和服方寸匕하야 日三服이라 病隨大小便去하면 小便正黃하고 大便正黑하니 是候也라

【校勘】

① 黃家: 『翼方』卷十八의 「黃疸」第三에는 “黃疸之爲病”으로 되어 있다.

② 日晡所發熱, 而反惡寒: “所”字는 俞橋本, 吉野

木, 寬保本, 享和本에서 모두 “時”字로 되어 있다. 『翼方』에는 “發熱”뒤에 “而反”이란 두 글자가 없는데, 없는 것이 맞다. 이 文句는 마땅히 “日晡所, 發熱惡寒”으로 끊어 읽어야 한다.

③ 此爲女勞得之: 『衛生寶鑑』卷十四의 「黃疸論」에는 “此女勞疸也”로 되어 있다.

④ 膀胱急: 『翼方』에는 “膀胱急”앞에 “得之”라는 두 글자가 있다.

⑤ 身盡黃: 『衛生寶鑑』에는 “身”字앞에 “一”字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一”字를 넣을 必要가 없다. 『病源』卷十二의 「女勞疸候」에는 “盡”字가 “目皆”로 되어 결국은 “身目皆黃”으로 되어 있어 뜻이 보다 確實해 졌다.

⑥ 額上黑: 『病源』에는 “額上”뒤에 “反”字가 있고, 『翼方』에는 “額”字뒤에 “上”字가 없다.

⑦ 因作黑疸: 『外台』卷四의 「女勞疸方」에는 「病源」을 引用하여 “黃疸, 酒疸, 女勞疸, 久久變成黑疸”로 되어 있다.

⑧ 大便必黑, 時澇: 『千金』卷十第五에는 “澇”字뒤에 “泄”字가 있다.

【字句解】

(1) 日晡: 즉 申酉之時로 대략 오후 3時부터 7時까지이다.

【考察】

본 條文은 女勞疸에서 瘀血이 함께 보이는 경우의 證治를 論하고 있는데, 主로 다섯 개의 方面으로부터 說明을 하였다.

첫째가 女勞疸과 濕熱黃疸과의 區別을 論한 것인데, 즉 原文에서 “黃家日晡所發熱, 而反惡寒, 此爲女勞得之”라는 部分이 여기에 該當된다. 黃疸病에서 濕熱內蘊에 의한 경우에 邪鬱陽明하게 되면 보통 日晡發熱이 보이면서 惡寒은 보이지 않는데, 만약 日晡發熱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惡寒이 보이면 이는 女勞疸로서 腎虛 및 陽氣不足으로 衛外를 할 수 데서 오는 症狀이다. 물론 女勞疸에도 日晡發熱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腎陰不足에 屬한다. 『金匱要略論注』에서는 이 問題에 대하여 “若此獨專於日晡, 日晡卽申時, 此時氣血注膀胱, 然前日薄暮, 此日晡, 乃統申時言之, 酉時氣血注腎

也。以發熱知陰虛生熱 …… ”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본 論文의 條文2에서 言及한 “手足中熱, 薄暮卽發”과 같은 意味로 볼 수 있고, 또 이 症狀은 女勞疸의 初期에 특히 잘 나타나는 것이다.

둘째가 女勞疸이 黑疸과 區別됨을 論한 것인데, 즉 原文에서 “膀胱急, 少腹滿, 身盡黃, 額上黑, 足下熱, 因作黑疸”의 部分에 該當된다. 여기에서 “膀胱”은 즉 小腹이란 뜻으로 쓰인 말이고, 膀胱急은 즉 小腹拘急 및 小腹脹滿을 意味하는데, 모두가 腎虛로 小腹이 濡養을 잃고 瘀血이 內에 停滯되어 오는 症狀이다. 또 身盡黃은 全身이 黃色을 띄고 光澤이 없음을 意味하고 있고 協議의인 黃疸之黃이 아니며, 이는 腎虛 및 氣血不能榮於外하므로 오는 症狀이다. “額上黑, 足下熱”은 條文2의 “額上黑, 手足中熱”과 같은 原理로 오는 症狀이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모두가 腎虛로 發生하는 症狀들이다. “因作黑疸”은 “因此爲黑疸”, 즉 “이로 因하여 黑疸이 發生한다.”는 뜻으로 理解할 수도 있고, 또 “于是好象爲黑疸”, 즉 “그리하여 마치 黑疸인 듯하다”라는 뜻으로 理解할 수도 있다. 臨床을 結合하여 보면 이 두 가지 解釋이 모두 可能한 것이다. 물론 女勞疸도 黑疸로 轉變될 수가 있는데, 原文을 보면 서로 다른 次元에서 거듭하여 “此爲女勞得之” 및 “此女勞之病”이라고 言及하고 있다. 마치 女勞疸에서도 黑疸에서 보이는 “目靑面黑, 大便正黑, 雖黑微黃”과 비슷한 “身盡黃, 額上黑, 大便必黑”등 症狀이 보일 때도 있지만 實際로는 절대로 黑疸은 아니라는 點을 強調하고자 하는 듯하다. 이에 根據하면 “因作黑疸”은 두 번째 뜻으로 理解하는 것이 보다 妥當하다 할 것이다.

臨床에 있어서 女勞疸과 黑疸은 區別이 되면서도 서로 聯關도 되고, 또 서로 轉變할 수도 있어 臨床에서 區別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이상과 같이 原文에 대한 分析을 통하여 본 條文이 과연 “女勞疸兼瘀血의 證治”를 論한 것인지, 아니면 “女勞疸이 轉變하여 된 黑疸의 證治”를 論한 것인지에 대하여 長期的으로 爭議가 있었던 問題를 確實하게 解明할 수가 있게 되었다. 女勞疸과 黑疸의 區別을 表로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女勞疸과 黑疸의 區別

	女勞疸	黑疸
成因	房勞過度	濕熱黃疸轉變
病機	腎虛	脾胃虧損
症狀	額上黑, 膀胱急, 少腹滿, 身盡黃, 足下熱	目靑面黑, 雖黑微黃, 脛中灼熱, 大便正黑, 皮膚爪之不仁, 手足心熱
治法	益腎活血化瘀	補益脾胃, 益肝化瘀, 清除濕熱
關係	兩者는 相互 轉變할 수 있다	

셋째가 女勞疸과 水脹의 鑑別을 論한 것인데, 즉 原文에서 “其腹脹如水狀, 大便必黑, 時瀉, 此女勞之病, 非水也”의 部分에 該當된다. 女勞疸의 後期에 腎虛에 瘀血까지 兼하게 되면 腹脹如水鼓와 大便色黑質溇 등의 症狀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때의 腹脹은 水液이 腹部에 停聚하여 發生하는 脹滿과 다르기에 “非水也”라고 한 것이다.

넷째가 女勞疸의 豫後에 대하여 論한 것인데, 原文에서는 “腹滿者難治”라고 하였다. 女勞疸의 後期에 脾胃兩敗의 症狀이 나타나게 되면 脾臟은 轉輸의 機能을 잃고, 腎臟은 主水하는 등의 機能을 잃어 眞水가 차츰 虧損되고 水濕이 停聚하게 되어 腹滿을 일으키는데, 이런 경우에는 豫後가 비교적 나쁘고 治療해도 速效를 얻을 수 없기에 “腹滿者難治”라고 하였다.

다섯째가 女勞疸의 治法에 대하여 論한 것인데, 즉 原文에서 말한 “硝石礬石散主之”이다. 이 구절은 마땅히 “非水也”의 뒤에 붙는 것이 妥當하다고 보는데, 이는 文句 倒置의 文法에 屬한다.

硝石礬石散證의 病因이 과연 瘀 또는 濕에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尤在涇은 本證은 모두 腎熱에 屬한다고 하면서 瘀나 濕에 대해서는 言及하지 않았으며, 唐容川은 『金匱要略淺注補正』에서 “女勞疸是瘀血在血室, 不在腎與膀胱”이라고 하면서 瘀만 있다고 하고 濕에 대해서는 言及을 하지 않았으며, 趙以德은 『金匱方論衍義』에서 “腎者陰之主也, 爲五臟之根, 血盡屬之 …… 其血敗矣, 將與濕熱凝瘀於腸胃之間”이라고 하면서 濕熱凝瘀가 本證의 主因이라고 하였다. 이 說이 比較的 合理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理由는 첫째로 女勞疸이 腎虧로

因해 發生하고 腎은 主水하며 腎病하게 되면 津液의 運行이 阻礙를 받아 血行이 通暢하지 못하게 되기에 瘀와 濕이 모두 生成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본 證에서 使用하는 藥物인 硝石은 血로 들어가서 消瘀活血하는 作用을 일으키고, 礬石은 氣로 들어가서 化濕利水하는 作用을 일으키는데, 만약 濕도 없고 瘀도 없다면 이들을 選擇할 理由가 없었을 것이다. 셋째로 이런 種類의 疾患을 治療함에 있어서 만약 化瘀祛濕을 疏忽히 하면 往往 뚜렷한 效果를 期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외에 일부 註釋家들은 이 證이 熱毒과 關聯된다고 하였는데, 예를 들면 黃樹曾은 “因縱慾過度, 熱毒聚於胞宮之內”라고 하였다.

【原文 15】

酒黃疸①은 心中懊懣②하고 或熱痛③하니 梔子大黃湯主之라

梔子大黃湯方

梔子十四枚 大黃一兩 枳實五枚 豉一升

右四味를 以水六升에 煮取二升④하야 分溫三服이라

【校勘】

① 酒黃疸: 『千金』卷十第五에는 “痰結發黃酒疸”로 되어 있고, 『外台』卷四에는 “酒瘴者”로 되어 있으며, 『二注』에는 “酒疸病”으로 되어 있고, 『心典』과 『正義』에는 모두 “酒疸”로 되어 있다.

② 懊懣: 『千金』에는 이 뒤에 “而不甚熱”이란 네 글자가 더 있다.

③ 或熱痛: 『翼方』卷十八의 「黃疸」에는 “或”字뒤에 “熱”字가 없다. 葉霖은 “熱字疑作‘腹’字”라고 註釋하였다.

④ 煮取二升: “二升”뒤에 “去滓”라는 두 글자가 脫落되었는데, 『衛生寶鑑』卷十四의 「黃疸論」에 根據하여 補充해야 한다.

【考察】

본 條文에서는 酒疸의 證治에 대하여 論하고 있다. 原文2에서 이미 酒疸의 病機에 대하여 論하였는데, 즉 濕熱內蘊하여 上熏於心하는 故로 心中懊

懣의 症狀이 나타나고, 또 濕熱의 阻滯로 氣機의 運行이 不暢하여 心中熱痛의 症狀이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이 때에는 清除濕熱法으로 治療해야 하며 處方은 梔子大黃湯으로 한다. 그리고 본 條文은 原文2·4·5와 서로 參照하여 보아야 全般的인 理解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 梔子大黃湯으로 酒疸을 治療하되 그 適應證의 症狀範圍가 본 條文에서 말한 “心中懊懣, 或熱痛”外에도 原文2의 “不能食”과 原文4의 “小便不利, 足下熱” 그리고 原文5의 “腹滿欲吐, 鼻燥”등이 包括됨을 알 수가 있기에 臨證時에는 이를 疏忽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徐忠可가 “前酒疸正條尙有不能食, 欲吐后各變證, 如小便不利, 足下熱, 腹滿不一, 此獨舉心中懊懣爲酒疸第一的據也. 熱而至痛, 更甚矣”라고 말한 것이다.

喻昌과 張石玩은 모두 『傷寒論』과 聯關시켜 본 條文의 方證을 解釋하였는데, 그들의 說은 매우 理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본 條文에서 論한 病症의 範圍를 擴大했을 뿐만 아니라 方劑의 運用範圍도 擴大하였다. 具體적으로 喻昌은 『醫門法律·黃疸門』에서 “此治酒熱內結, 昏惑懊懣之劑, 然『傷寒論』中有云: ‘陽明病, 無汗, 小便不利, 心中懊懣者, 身必發黃’, 是則諸凡熱甚於內, 皆足致此, 非獨酒也”라고 解釋하였고, 張石玩은 『張氏醫通·黃疸』에서 “此卽枳實梔子豉湯之變名也. 大病后勞復發熱, 服枳實, 梔子, 豉三味, 復令微汗, 使餘熱從外而解, 若有宿食, 則加大黃從內而解. 此治酒疸之脈沉者, 用此方以下之, 其脈浮當先吐之, 則用梔子豉湯, 可不言而喻矣”라고 解釋하였다.

【原文 16】

諸病黃家①가 但利其小便②하고 假令脈浮면 當以汗解之니 宜桂枝加黃芪湯主之라 方見水氣病中이라

【校勘】

① 病黃家: 『千金』卷十第五에는 “病黃疸”로 되어 있고, 『金鑑』에는 “黃家病”으로 되어 있다.

② 但利其小便: “但”字는 『千金』에서 “宜”字로 되어 있다.

【考察】

본 條文에서는 狹義的 黃疸의 治療原則과 發病初期에 衛表氣虛에 屬한 경우의 治法에 대하여 論하고 있다. 原文에서 “諸病黃家”는 狹義的 黃疸로 理解해야 하고, 이 경우에는 반드시 濕邪內鬱이 있기 마련인데, 이 때에 小便을 利하게 하면 그 濕邪는 除去된다. 故로 利小便은 狹義的 黃疸을 治療하는 通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對하여 陳士 鐸은 『石室秘錄·黃疸』에서 “疸雖成於濕熱, 畢竟脾虛不能分消水濕, 以致成黃. 我用茯苓, 苡仁, 車前子大劑爲君, 分消水濕, 仍是健脾益氣之藥, 少用茵蔯以解濕熱, 用肉桂引入膀胱, 盡從小便而出, 無事張惶, 面暗解其濕熱之橫, 此方之澹而妙, 簡而神也”라고 論述하였다. 唐宗海도 『金匱要略淺注補正』에서 이 問題에 關하여 “但利其小便, 是治黃疸之正法, 亦治黃疸定法也”라고 하였다. 만약 病者가 脈이 浮하고 自汗에 惡風이나 惡寒이 보이면 이는 衛表氣虛로 因하여 濕鬱於表하고 榮衛不和하게 된 것으로서, 이 때에도 여전히 發汗解表法으로 治療해야 하는데, 益氣固表하고 發汗解肌하며 調和榮衛하는 桂枝湯을 쓴다.

【原文 17】

諸黃①(1)은 猪膏髮煎主之라
猪膏髮煎方
猪膏半斤 亂髮如鷄子大三枚
右二味를 和膏中②煎之하고 髮消藥成③하면 分再服④하니 病從小便出⑤이라

【校勘】

① 諸黃: 葉霖은 “諸黃’下當有見證”이라고 註釋하였다.

② 和膏中: “和”字는 誤字로서 무엇을 膏에 섞는 지 알 수가 없다. 『外台』卷四에는 “和”가 “內髮”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다. “內”는 “納”과 비슷하게 읽는데 즉 넣는다는 뜻이다.

③ 發消藥成: 『外台』卷四에는 “發消盡, 研, 絞去膏細滓”로 되어 있다.

④ 分再服: “再”字는 『外台』에서 “二”로 되어 있다.

⑤ 病從小便出: “出”字는 『外台』에서 “去也”로 되어 있다.

【字句解】

(1) 諸黃: 吳謙은 “諸黃, 爲一切黃也.”라고 註釋하였다.

【考察】

본 條文에서는 胃腸燥結에 屬한 萎黃의 治法에 對하여 論하고 있다. 原文에 나오는 “諸黃”은 모든 黃疸을 指稱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猪膏髮煎으로 是 모든 黃疸을 治療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특히 濕熱黃疸에는 이 處方이 더욱 適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諸黃”은 萎黃에 있어서 癆燥에 屬한 경우를 統稱하는 것으로, 그 主症으로서 是 全身皮膚의 淡黃色, 小便通暢而色不黃, 腹脹에 便結 혹은 不暢, 眩暈耳鳴, 心悸寐少, 舌淡苔薄 그리고 脈細 등이 보인다. 그 病의 形成原因은 蟲積食滯로 因하여 脾土失健을 일으켜 水穀을 精微로 化生하지 못하여 氣血이 虧少하게 되어, 外로는 肌膚를 濡養하지 못하고 內로는 臟腑를 營養하지 못함으로써 肌肉이 萎黃해지고 光澤이 없어지게 되거나, 또는 失血過多나 大病之後에 氣血이 耗損되어 氣血不足을 일으켜 發病이 되기도 한다. 그 治療는 본 處方으로 潤腸消滯하는 外에 또 病證에 따라 黃芪建中湯이나 人蔘養榮湯을 選擇하여 쓸 수도 있고, 或은 原文22에 나오는 小建中湯 등을 쓸 수도 있다. 그리고 鈎蟲으로 因한 者에 對해서는 驅蟲藥을 함께 使用해야 한다.

【原文 18】

黃疸病①은 茵陳五苓散主之라 一本云 茵陳湯及五苓散并主之라
茵蔯五苓散方
茵蔯蒿末十分 五苓散五分 方見痰飲中
右二味②和하여 先食飲③方寸匕하여 日三服이라

【校勘】

① 黃疸病: 吳謙은 “黃疸病’之下, 當有‘小便不利者’五字, 茵陳五苓散有着落, 必傳寫之遺”라고 하였

다. 또 『溫病條辨』卷二에는 “諸黃疸，小便短者，茵陳五苓散主之”로 되어 있다.

② 二味: 元刊本과 吉野本 그리고 享和本에는 모두 “二物”로 되어 있는데, 이에 根據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③ 食飲: “飲”者뒤에 “服”者가 脫落되었는데, 『衛生寶鑑』卷十四에 根據하여 補充해야 한다.

【考察】

본 條文에서는 黃疸治療에 있어서 “但利其小便”하는 治法에 使用하는 代表方劑가 茵陳五苓散임을 論하고 있다. 大多數의 醫家들과 金匱要略을 研究하는 現代學者들은 본 處方이 濕熱黃疸에서 濕이 偏重한 경우에 適切하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徐大椿은 이와 달리 『醫略六書·雜病證治』에서 “白朮健脾土以制濕，肉桂壯少火以通閉，豬苓利三焦之濕，茯苓滲脾胃之濕，澤瀉通利膀胱以利水，茵陳清利濕熱以退黃也……使少火氣充，則脾健濕行而小便自利，虛黃無不退矣。此壯火崇土滲濕之劑，爲虛黃小便不利之專方”이라고 하였는데, 이 說은 妥當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본 處方을 살펴보면 藥物 用量에 유난히 留心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處方 內에 茵陳의 用量이 五苓散의 두 배가 되며, 또 桂枝의 用量은 五苓散 內에서 단지 總量의 1/11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본 處方에서는 단지 桂枝의 膀胱氣化를 도와주는 作用만 取한 것이 溫經通陽하는 藥物作用은 取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다.

【原文 19】

黃疸①腹滿하고 小便不利而赤하며 自②汗出하면 此爲表和裏實이니 當下之니 宜大黃硝石湯이라

大黃硝石湯方

大黃③ 黃柏 硝石各四兩 梔子十五枚

右四味④를 以水六升에 煮取二升하고 去滓하여 內硝更煮⑤하여 取一升하고 頓服⑥이라

【校勘】

① 黃疸: 『千金』卷十第五와 『外台』卷四에서는 『傷寒論』을 引用하여 모두 “黃家”라고 하였다.

② 自: 『外台』에는 “身”字로 되어 있다.

③ 大黃: 『千金』에는 “大黃三兩”으로 되어 있고, 『外台』卷四의 『陰黃方』에는 “大黃四分”으로 되어 있다.

④ 四味: 『金鑑』에는 “三味”로 고쳐 썼는데 이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네 가지 藥을 이미 모두 달였다면 이는 아래의 “內硝更煮”라는 말과 잘 맞지를 않는다. 또 『外台』를 對照해보니 “三物”로 되어 있다.

⑤ 內硝更煮: 『千金』에는 “內芒硝復煎”으로 되어 있고, 『外台』에는 “內硝石更煎”으로 되어 있다.

⑥ 頓服: 『千金』에는 “先食頓服之”로 되어 있고, 『外台』에는 “先食頓服盡”으로 되어 있다.

【考察】

본 條文에서는 熱盛裡實에 屬한 濕熱黃疸의 證治에 대하여 論하고 있다. 여기에 나오는 “黃疸”은 濕熱黃疸을 가리키는 것이고, “腹滿”은 邪熱入裡하여 裡熱結實한 故로 나타나는 症狀이다. 또 “小便不利而赤”은 小便量이 적고, 色이 깊은 黃色을 띠며 심지어는 茶汁과 같은 것을 意味하는 것으로, 이는 濕熱이 下注膀胱하여 氣化不利를 일으키는데서 오는 症狀이며, “自汗出”은 裡熱熏蒸으로 나타나는 症狀인데 臨證時에 반드시 汗出이 보이는 것은 아니다. 張仲景은 이상의 症狀을 分析하는 것을 통하여 본 病證의 病位가 表에 있지 않고 裡에 있다고 闡明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原文에서 말한 “此爲表和裡實”이다. 이 病證의 病機는 濕熱內蘊 및 裡實熱結인데, 마땅히 攻下法으로 通腑瀉熱하여 治療해야 하며, 方劑는 大黃硝石湯을 쓴다. 본 方劑는 梔子大黃湯이나 茵陳蒿湯보다 作用이 보다 강한 것으로, 尤在涇은 이에 대하여 『金匱要略心典』에서 “腹滿小便不利而赤者，爲裡實。自汗出爲表和。大黃，硝石亦下熱祛濕之法，視梔子大黃及茵陳蒿湯較猛也”라고 說明하였다.

【原文 20】

黃疸病①에 小便色不變②하고 欲自利③하며 腹滿而喘(1)하며 不可除熱하고 熱除④必噦(2)하니 噦者는 小半夏湯主之라 方見痰飲中이라

【校勘】

① 黃疸病: 『翼方』卷十八의 「黃疸第三」에는 “治黃疸”로 되어 있다.

② 小便色不變: 『翼方』에는 “變”字が “異”字로 되어 있다.

③ 欲自利: 葉霖은 “欲”字是衍文. 自利, 小便自利”라고 註釋하였다.

④ 除熱: 『外台』卷四에는 “除”字뒤에 “其”字가 있다.

【字句解】

(1) 腹滿而喘: 李炆은 “腹滿而喘, 脾氣虛而肺氣不利耳”라고 註釋하였다.

(2) 熱除必噦: 李炆은 “用苦寒藥攻裡除熱, 則胃寒而虛氣上逆”이라고 註釋하였다.

【考察】

본 條文에서는 寒濕黃疸에 대한 誤治로 나타난 變證에 대한 證治를 論하고 있다. 이는 『傷寒論』第199條文에서 말한 “陽明病, 不能食, 攻其熱必噦, 所以然者, 胃中虛冷故也, 以其人本虛, 攻其熱必噦”와 비슷한 意味를 갖고 있다. 비록 黃疸病이긴 하지만 小便色不黃하고 欲自利한 것을 보아 이는 太陰脾가 虛하고 寒히 있는 것으로 당연히 腹滿의 症狀이 보이게 되고, 또 그 腹滿의 特徵이 喜溫喜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腹滿은 脾虛로 因하여 寒濕阻滯가 되고 氣機不暢이 되어 오는 것이다. “喘”은 여기에서 少氣不足以息을 말하는 것으로 中焦氣虛로 因하여 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마땅히 溫中補脾法으로 治療해야 하는데 理中之藥을 쓸 수 있다. 이것은 『腹滿寒疝宿食病證治第十』의 第3條文에서 말한 “腹滿時減, 復如故, 此爲寒, 當與溫藥”하는 理致와 같은 것이다. 만약 이것을 裡熱이 있다고 잘못 判斷하여 寒性藥을 써서 清泄裡熱하는 治法을 行한다면 脾陽이 더욱 損傷되어 胃氣上逆을 일으켜 噦의 症狀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때에는 小半夏湯을 投與하여 和中降逆止呃해야 하며, 呃가 멈춘 뒤에는 다시 辨證하여 黃疸을 治療해야 한다. 여기에서 小半夏湯은 본 病의 表를 治療하는 方劑에 屬하고 黃疸을 治療하는 處方은 아니다. 물론 誤治로 因하여 寒飲內停하고 胃氣上

逆하여 呃逆이 發生하였다면 여전히 이 處方을 쓸 수가 있다. 臨床의 實際에 있어서는 溫中益氣하는 藥을 加味하는 경우가 많다.

【原文 21】

諸黃에 腹痛而嘔者는 宜柴胡湯①이니 必小柴胡湯이라 方見嘔吐中이라

【校勘】

① 宜柴胡湯: 林이 校注한 “必小柴胡湯”이 맞다. 病黃者의 “腹痛而嘔”의 症狀을 가지고 『傷寒論』96條를 調査한 결과 “喜嘔, 或腹中痛, 與小柴胡湯”이라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林校의 根據이다.

【考察】

본 條文에서는 黃疸에 肝胃不和를 兼한 경우의 證治에 대하여 論하고 있다. “諸黃”은 여기에서 濕熱黃疸을 가리키고, 腹痛과 嘔는 肝氣가 鬱滯되고 少陽이 氣機不利하게 되어 胃를 犯한데서 오는 症狀으로서 다시 말하면 邪在少陽하고 肝木犯胃한 것이 病機의 要點이다. 이 때에는 和解少陽하고 疏肝和胃하는 治法을 써야 하고, 方劑는 柴胡湯으로 한다. 그런데 原文뒤를 보면 “必小柴胡湯”이라고 註를 달았다. 臨床을 通하여 보면 濕熱黃疸에서 腹痛而嘔의 症狀가 보이는 것은 以上에서 論한 病機외에도 少陽陽明同病 즉 말하자면 少陽氣機鬱滯 및 陽明裡實熱甚에 因한 경우도 있으며, 또 小柴胡湯의 方藥構成을 보면 處方 중에 人蔘, 甘草, 大棗는 모두 甘溫之品으로서 助濕生熱할 수 있는 藥들이라서 濕熱黃疸에는 小柴胡湯보다 大柴胡湯이 보다 妥當하다고 할 수가 있다. 만약 目黃, 身黃, 洩黃이 뚜렷한 者는 大柴胡湯 중의 生薑과 大棗를 빼고 蒲公英, 茵陳, 金錢草를 加하면 더욱 좋다. 물론 黃疸病의 初期나 恢復期에 少陽樞機不利 및 胃氣上逆의 症狀이 나타나는 者에 대하여서는 小柴胡湯이 適切하다. 總的으로 말한다면 臨證時에는 마땅히 辨證을 바탕으로 하여 大柴胡湯 또는 小柴胡湯을 選擇해야 하고, 原文 뒤의 注文에 拘碍받을 必要는 없다.

본 條文에 대한 各 醫家의 認識을 살펴보면 서

로 다른 點을 보이고 있다. 徐忠可는 본 條文의 內容을 小柴胡湯의 輕證으로 보고 있었고, 程雲來는 腹痛이 裡有實邪한 故로 發生한다고 하면서 大柴胡湯證으로 보고 있었으며, 尤在涇은 腹痛而嘔을 小柴胡湯證을 보고 있는 同時에 또 小柴胡湯으로는 黃疸을 治療할 수 없다고 主張하였으며, 吳謙 등은 “嘔而腹痛”에는 大柴胡湯이 適切할 때도 있고 小柴胡湯이 適切할 때도 있다고 하였는데 吳謙 등의 主張이 辨證論治의 原則에 符合된다고 할 수 있다.

【原文 22】

男子黃^①하고 小便自利하면 當與虛勞小建中湯이라 方見虛勞中

【校勘】

① 男子黃: “虛勞”라는 말은 “男子”앞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뒤로 온 까닭을 알 수가 없다.

【考察】

본 條文에서는 虛勞萎黃의 證治에 대하여 論하고 있다. “男子黃”은 『醫宗金鑑』에 根據하면 男子뿐이 아니고 女子에도 該當되며 該當되야 臨床의 實際와도 符合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黃”은 “萎黃”이란 뜻으로 濕이 있는 “黃”은 아니다. 왜냐하면 狹義의 黃疸에는 반드시 小便不利의 症狀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傷寒論』第278條文에 “若小便自利者, 不能發黃”이라고 하였고, 또 본 篇의 原文2에서는 穀疸은 “小便不通”이고, 原文3에서는 酒疸은 “小便必難”이며, 原文19에서는 裡實熱重黃疸은 “小便不利而赤”이라 하였는데, 본 條文에서는 이들과 反對로 “小便自利”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萎黃은 習慣적으로 虛黃이라고도 稱하고 男女老少를 勿論하고 大病이나 失血 등으로 모두 發生할 수가 있다. 그 症狀에 대하여 李中梓는 『證治匯補·黃疸』에서 “虛黃口淡怔忡, 耳鳴脚軟, 怠惰無力, 寒熱微作, 小溲濁澁, 皮膚雖黃……”이라고 說明하였다. 萎黃의 病機는 脾胃虛弱으로 因하여 生化之源이 不足하게 됨으로써 血少不得外榮하여 오는 것인데, 治療는 마땅히 脾胃로부터 着手

해야 하고, 小建中湯을 써서 健運中土하여 生化之源이 充足해지고 氣血이 充滿하여 外로 넘쳐나게 함으로써 萎黃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IV. 結論

『金匱要略·黃疸病脈證并治』에 대하여 各 醫家의 註釋과 結合하여 研究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金匱要略·黃疸病脈證并治』에서 論述한 黃疸病은 濕熱發黃, 寒濕發黃, 火劫發黃, 燥結發黃, 女勞發黃 그리고 虛黃 등으로 그 範疇가 比較的 넓다.

2. 본 篇에서는 주로 濕熱發黃의 病因, 病機, 治療原則 그리고 辨證論治에 대하여 論하였다. 黃疸의 病機는 주로 “脾色必黃”, “瘀熱以行”, 腎虛 등에 있고 致病原因으로는 주로 外感, 飲食不節, 虛損 그리고 誤治 등이 있다.

3. 仲景은 黃疸을 주로 穀疸, 酒疸, 女勞疸로 分類하였으며, 穀疸은 身黃, 目黃, 溲黃, 寒熱不食, 食即頭眩, 心胸不安 등을 主症으로 하고, 飲食不節 및 濕熱內蘊에 의하여 發病한 것이며, 清利濕熱의 治法으로 治療하는 것이 妥當하고, 方劑는 茵陳蒿湯으로 한다.

4. 酒疸은 身黃, 目黃, 溲黃, 그리고 心中의 懊懣 혹은 熱痛을 主症으로 하고, 飲酒過度 및 濕熱薰蒸 등에 의하여 發病한 것이며, 清熱除煩의 治法으로 治療하는 것이 妥當하고, 方劑는 梔子大黃湯으로 한다.

5. 女勞疸은 額上黑, 足下熱, 日晡所發熱, 而反惡寒, 膀胱急, 小便自利, 大便必黑時溇 등을 主症으로 하고, 腎虛夾瘀에 의하여 發病한 것이며, 益腎祛瘀의 治法으로 治療하는 것이 妥當하고, 方劑는 金匱腎氣丸 혹은 六味地黃丸에 硝石礬石散을 配合한 것으로 한다.

6. 黃疸의 治法에는 汗·吐·下·和·溫·清·補·消 등 八法이 있는데, 病證에 따라 選擇 및 使用해야 한다. 谷疸이나 酒疸을 勿論하고 그 病證이 濕熱併重에 屬한 것인지 아니면 熱重於濕나 濕重於熱에

屬한 것인지를 辨別해야 한다. 만약 濕熱併重에屬하면 茵陳蒿湯으로 治療해야 하고, 濕重於熱에屬하면 茵陳五苓散으로 治療해야 하며, 만약 熱重於濕에屬한다면 病이 重한 경우에는 大黃硝石湯으로 治療해야 하고 病이 輕한 경우에는 梔子大黃湯으로 治療해야 한다.

7. 濕熱黃疸(酒疸과 谷疸)이 오랫동안 治癒되지 못하면 黑疸로 轉變될 수 있으며, 黃疸의 誤治로 胃氣上逆而噦의 症狀이 나타난 경우에는 和胃降逆의 治法으로 治療해야 하고, 方劑는 小半夏湯으로 한다.

8. 諸黃表虛한 경우에는 마땅히 益氣固表하고 調和營衛하는 治法으로 治療해야 하고, 方劑는 桂枝加黃芪湯으로 한다.

9. 邪氣가 少陽에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和解少陽하는 治法으로 治療해야 하고, 方劑는 小柴胡湯으로 하며, 만약 邪氣가 少陽과 陽明에 있는 경우에는 和解少陽하는 同時에 陽明里實을 除去하는 治法으로 治療해야 하는데, 方劑는 大柴胡湯으로 한다.

10. 萎黃에 있어서 胃腸燥結에屬한 경우에는 마땅히 潤腸通便하는 治法으로 治療해야 하고, 方劑는 豬膏發煎으로 하며, 脾胃寒濕에屬한 경우에는 溫補脾陽하는 治法으로 治療해야 하는데, 方劑는 小建中湯으로 한다.

11. 臨床에서 黃疸을 治療함에 있어서는 또 『河間六書·論證』의 說이 參考價値가 크다 할 수 있다. 具體的인 內容을 살펴보면 즉 “結胸而發黃者, 茵陳同陷胸湯各半服之, 或誤服巴豆熱毒丸藥下之, 反損陰氣, 遂協熱利不止而發黃者, 同大承氣各半服之. 亦有協熱利不止, 更或結胸而發黃者, 用茵陳五分, 同陷胸湯三分, 大承氣湯二分之一以下之. 或兩感發黃者, 本方加黃連解毒湯一服急下之, 或頭微汗, 小便利而微黃者, 濕熱微也, 宜梔子柏皮湯, 發黃甚者, 茵陳合三一承氣湯. 陽明病表熱極甚, 煩渴熱郁, 留飲不散, 以致濕熱相搏, 而身體發黃, 其候但頭汗出, 身無汗, 齊頸而還, 小便不利, 渴欲水漿者, 身體發黃, 宜茵陳湯調下五苓散”이다.

1. 上海中醫學院, 中醫內科學, 香港, 商務印書館香港分館, 1977, p. 83.

2. 揚力, 中醫疾病豫測學,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4, p. 264.

3. 대한병리학회, 병리학(II), 서울, 고문사, 1995, p. 744.

4.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語譯,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 114, p. 125, p. 483.

5. 南京中醫學院中醫係, 黃帝內經靈樞譯,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p. 102, pp. 107~108, p. 450.

6. 上海中醫學院, 中醫內科學, 香港, 商務印書館香港分館, 1977, p. 83.

7. 明·張介賓, 景岳全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 693.

8. 郭霽春·王玉興, 金匱要略校註語譯,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 191~206.

10. 張機,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影印出版, 1984.

11. 陳紀藩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pp. 516~545.

參考文獻